

국제선센터 명사 초청 일요법회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깨어있는 삶은 '바른 관계 맺기'

현대사회는 생명 위기의 시대다. 연기법에 근거해 생명 존중과 비폭력의 삶을 존중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지남과 같다.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생명과학자이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생명과학에 어떻게 투영시킬 것인가를 천착해왔다. 9월 23일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에서 열린 일요명사초청법회에서도 우 교수는 생명을 대한 예의와 불교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설교했다. 이날의 강연 현장을 정리해봤다. **정리=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늘은 '생명에 대한 예의와 깨어있는 삶'을 주제로 대중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연기법을 통한 생명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오늘 이야기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인혁당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작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면 간첩단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중세로 가봅시다. 중세시대 마녀재판의 경우 무고한 여인들이 마녀라는 지목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대부분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이들을 실제 마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자신이 보고 있는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은 나의 인지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마녀재판과 인혁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 현대사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과학과 자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자본주의의 시각이 부처님의 시각과 어떻게 다르고, 그 경계에

서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행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137억 살
오늘 모이신 분들의 연령대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다들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 없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역시 당신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조상들의 역사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현대 천체물리학의 이론대로 추산하면 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형성됐습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고, 그 지구 안에서 초기 생명체가 생기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나이는 137억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시대

과학·자본이 결합한 시대

인간의 욕망만 확대

관계 단절·왜곡은 '폭력'

바른 관계 회복이 시대과제

'생명연장'이 생명존중 아냐

죽음, 삶의 일부로 인식해야

를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삶에 있다

내 피를 빼는 모기도 내 피를 빨기 위해 137억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차 없이 잡죠. 내 뺨에 있는 모기를 살려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우리는 '죽인다, 살린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사는 게 좋은 것이고, 유수한 역사 속

에 생명이 살아 있다면 지구는 반토막이 났을 것입니다. 흔히들 '생명 연장'을 '생명 존중'으로 착각하는데 생태계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야말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하지만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고, 앞으로 펼쳐질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무의미한 죽음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무수한 시간의 역사는 수많은 관계들로 채워집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이런 관계 맺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불교적으로 풀이하자면 연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런 연기적 실상을 깨달으라는 데 있습니다. 연기적 실상은 현대적 언어로 보면 바른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명 안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관계는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이 잘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자본주의로 투영되는 현대사회는 어떻게요?

과학자로서 소회를 밝히자면 과학이 자본주의와 과도하게 연결된 한국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서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쉬워졌고, 이 잉여가치는 자본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과학과 자본은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이미 과학도 생산 효율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장 속으로 과학자들을 내몰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키려 합니다. 생산과 그에 따른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 경쟁은 가능한가

사회는 무한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할까요? 경쟁은 대등한 조건에 놓은 사람과 집단이 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무한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설사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사회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생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선 순환 구조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연기적 실상은 깨지고 고통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해고된 사람들 중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죽음,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경계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가 우리 불자들이 고민해할 지점입니다.



우희중 교수는 ... 범명은 여산(如山). 우희중 교수는 1981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강사 등을 거쳐 1992년부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면역학교실 교수로 있다. 현재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불교평론 편집위원 등 한국불교 지성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리석음은 곧 폭력이다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연기적 실상이라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명이고 폭력입니다. 세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와 종교 갈등 등 수많은 폭력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상처 입히고, 주먹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왜곡과 단절 역시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 경책하는 것을 폭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분풀이로 문제에 접근해 아이를 채근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감정으로 아이를 때릴 때 관계는 단절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주체가 아닌 대상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참된 관계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명이고, 이는 내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강자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약자들은 폭력적 상황에서 무관심과 체념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관계를 스스로 단야

버림으로서 이를 모면하려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 없어', '내가 나선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와 같은 우리들의 체념들은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내몰리게 된 사람들에게는 폭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런 폭력적 구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면목을 바로 보기 위한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회에서, 일상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유한인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은 스스로 밝혀 폭력적인 삶의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을 깨뜨리라'는 말도 내 안의 무명으로 형성된 왜곡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많지만, 그 형태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9월 23일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우희중 교수 초청 일요법회에서 참가대중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님 출가익식 지원

신부님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